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5. 12. 22(수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녹색협력기획과장 김형수 사무관 심인보 (Tel. 044-200-2882)
22일(화) 15시(회의 종료)이후 사용			

제6기 녹색성장위원회 출범, 파리협약 후속조치 만전 당부

- 제6기 녹색위 민간위원장, 이지순 서울대 명예교수(민간위원장) 위촉
 - 황총리, 파리협정 후속조치를 위해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당부
 - ‘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’, ‘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’ 등 심의
-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논의하는 제6기 녹색성장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.
- 정부는 22일(화)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「제6기 녹색성장위원」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.
 - 제6기 녹색성장위원회*는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위촉하고, 녹색성장전략, 기후변화대응, 에너지, 녹색기술·산업 분야 각계 전문가 20명(별첨 1)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다.
- *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이나,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민간위원을 위촉
- 회의에 앞서 황 총리는 『제21차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(COP 21, 11.30~12.11) 결과와 관련하여,
- 금번 파리협정 체결은 범지구촌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하고, 대통령의 총회 기조연설에 맞추어 후속조치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.

○ 특히,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%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부부처 만의 노력이나, 규제 중심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

- 온실가스 감축을 계기로 배출권거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적극적인 기술개발, 에너지 신산업의 육성 노력을 해 나가야 2030년까지 100조원의 新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, 우리의 INDC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대통령의 기초연설 말씀도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셨다.

○ 이를 위해 앞으로 파리총회 후속조치에 중점을 두고 국조실과 기재부 등 소관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.

□ 이번 '제6기 녹색성장위원회 1차 회의'에서는,

○ ①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(환경부, '16~20), ②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(환경부, '16~35년, 매5년 연동계획) ③ 제6기 녹색위 운영계획을 심의·의결하고,

- 금번 「제21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결과 및 후속조치」와 「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현황·계획(국조실)」, 「마이크로그리드(Micro Grid)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(국조실)」 등을 보고받았다.

○ 「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(안)」은 한반도의 기후변화 전망을 기반으로 각 분야의 대응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

- 제2차 계획기간 동안 과학적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을 바탕으로 4개 분야, 20개 정책과제*(20개 부처 참여)를 제시하고 분야별 연계·통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.

* 기후변화 시나리오 고도화, 적응정보 공동 DB 구축, 기후변화 대응품종 확대, 산업별 적응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대,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등

- 「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(안)」은 지난 9월 UN이 확정된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목표(SDGs)에 따라서 ‘환경·사회·경제의 조화로운 발전’을 비전으로 4대 목표, 14개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.
- 내년부터 논의되는 UN의 고위급 정치포럼을 통해 SDGs에 대한 국제적 이행방안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국내 이행방안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.
- 이들 두 안건은 앞으로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계획으로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.
- ☞ 세부 문의 :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044-201-6885(기후변화적응대책),
환경부 정책총괄과 044-201-6652(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)

<붙임>

1. 녹색성장위원회 개요
2. 제6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현황
3. 제6기 녹색성장위원회 1차 회의 안건 주요내용

참고 1

녹색성장위원회 개요

□ 그간 경과

- 녹색성장정책을 총괄·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('09.1)
-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('10)에서 녹색위 법적 근거 마련
- '13.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녹색위를 총리 소속으로 변경

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(§14①~⑧)

- 위원회는 위원장 2인(총리+위촉위원)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
-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(공무원)과 위촉위원으로 구성
-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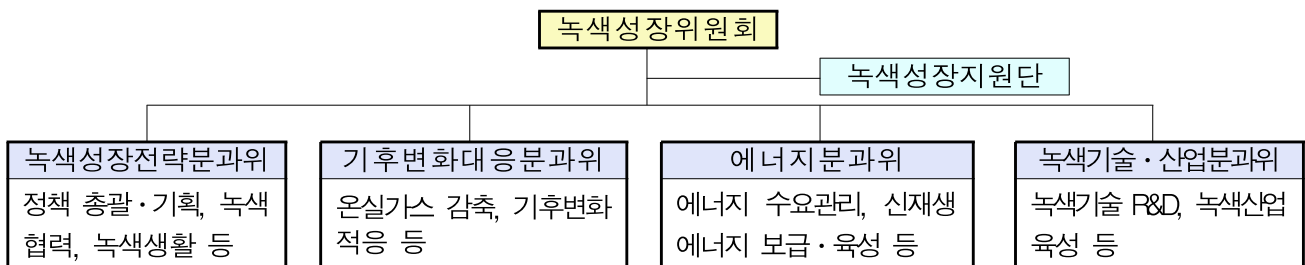
□ 위원회 기능 및 구성

○ 주요기능

-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,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
- 녹색성장 관련 법제도, 연구개발, 인력양성 및 녹색산업 육성
- 녹색성장 관련 교육·홍보 및 지식·정보의 보급,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,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
○ 조직구성

- 본위원회 : 38명(민간 21명, 당연직 17명)
 - * 공동위원장 : 국무총리, 민간위원장
 - * 당연직 정부위원 : 기재·미래·교육·외교·행자·문체·농식품·산업·복지·환경·여성·국토·해수부장관, 국조실장, 방통·금융위원장
- 분과위원회 : 4개 분과 * 분과위원장 : 위원 중 호선



사 진	성 명	학 력	주 요 경 력
	위원장 이지순 (66세)	· 경북고 · 서울대 상과대	· 現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· 제2~5기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· 한국경제학회 회장
	강승진 (58세)	· 제주제일고 · 서울대 경제학과	· 現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장 · 한국자원경제학회장
	김도년 (52세)	· 대일고 · 성균관대 건축공학과	· 現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·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· 서울시 상암DMC 총괄계획가
	김수이 (47세)	· 포항제철고 · 서울대 경제학과	· 現 홍익대 상경대학 교수 · 원광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· 에너지연구원 연구위원
	김재영 (51세)	· 동아고 · 서울대 토목공학과	· 現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·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 · 대한환경공학회 이사
	김재옥 (69세)	· 이화여고 · 이화여대 사회학과	· 現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·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·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대표
	김희집 (53세)	· 용문고 · 서울대 경영학과	· 現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· 액센츄어 코리아 총괄대표 · 제2~3기 녹색성장위원회 위원
	남기석 (63세)	· 순천매산고 · 전북대 화학공학과	· 現 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 · 나노기술집적센터 센터장 · 한국전기학회 회장
	성창모 (60세)	· 중앙고 · 서울대 금속공학과	· 現 녹색기술센터 소장 · 효성기술원 원장 · 차세대 융합기술원 자문위원
	손양훈 (57세)	· 경북고 · 연세대 경제학과	· 現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· 에너지경제연구원장 · 국민경제지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위원
	신동천 (60세)	· 신일고 · 연세대 경제학과	· 現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·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· 한국환경경제학회 회장

사 진	성 명	학 력	주 요 경 력
	신미남 (54세)	· 한양여고 · 한양대 재료공학과	· 現 (주)두산 퓨얼셀 사장 · 제8기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 ·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
	전의찬 (60세)	· 보성고 · 서울대 기계공학과	· 現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 ·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· 한국환경한림원 학술위원장
	정장표 (55세)	· 심인고 · 서울대 도시공학과	· 現 경성대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 · 대기환경학회 부회장 · 한국기후변화학회 이사
	조성경 (45세)	· 정신여고 · 고려대 식량자원학과	· 現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·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· 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회 위원
	조성봉 (57세)	· 양정고 · 동국대 경제학과	· 現 송실대 경제학과 교수 ·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·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
	조홍식 (52세)	· 송실고 · 서울대 법학과	· 現 서울대 법과대 교수 · 부산지방법원 판사 · 법제처 행정법제국 국민법제관
	한경섭 (63세)	· 경기고 · 서울대 금속공학과	· 現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 · 지식경제부 R&D 풍력분야 PD · 포항풍력에너지연구소 소장
	한화진 (56세)	· 서울창덕여고 · 고려대 화학과	· 現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· 대통령실 환경비서관 · 국회 기후변화포럼 이사
	허은녕 (51세)	· 상문고 · 서울대 자원공학과	· 現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· 대통령 국민경제지문회의 위원 ·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
	홍준희 (52세)	· 문일고 · 서울대 전기공학과	· 現 가천대 에너지 IT과 교수 · 산업부 에너지신산업협의회 위원 · 제7차 전력수급계획 위원

1.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(안)

□ 추진배경

- (법적 근거) 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 제4항, 시행령 제38조
- (목적)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('11~'15, 14개 부처)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보완·발전하여 기후 위험을 최소화

□ 계획기간 (참여부처) : 16~20년간 5개년 계획 (20개 부처)

□ 주요 내용

- 제1차 계획을 통하여 한반도의 기후 전망자료를 마련하고, 농수산·건강·생태계·인프라 등 분야별 취약성 평가·대책 수립
- 제2차 계획기간은 과학적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을 바탕으로 분야별 연계·통합 강화 (4개 분야, 20개 정책과제 마련)
 - ① 과학적 위험 관리 ② 안전한 사회건설 ③ 산업계 경쟁력 확보 ④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⇨ 기후변화 위험 감소

【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주요 추진방향】

추진방향	1차 대책	2차 대책
구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4개 부처 참여 • 농수산, 국토 9개부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개 부처 참여 • 4개 정책부처, 1개 정책기반
과학기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분야별 주요대책 중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87개 우선순위 기후리스크 기반 (관광, 국방 등 신규대책 마련)
기후변화 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문별 취약성 평가 • 부처별 정보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합 취약성 평가 • 기후변화 정보 통합·연계 제공
사회 안전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차별화된 적응대책 미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취약계층·지역 관리강화
정책기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간 실적점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표설정, 종합평가

□ 향후 조치 : 관련부처별 세부시행계획 작성·수립('16.2)

1. 계획 체계

비전	기후변화 적응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구축	
목표	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	
4대 정책	① 과학적 위험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후변화 감시·예보시스템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 기후영향 모니터링 취약성 통합평가 및 통합정보 제공 	② 안전한 사회건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취약지역·시설 관리 재난·재해 관리
	③ 산업계 경쟁력 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업별 적응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대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기반 조성 	④ 지속가능한 자연자원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생물종 보전·관리 생태계 복원·서식처 관리 생태계 기후변화 위험요소 관리
	⑤ 국내·외 이행기반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적응정책 실효성 강화 지역단위 적응활동 촉진 적응 국제협력 강화 적응 홍보·교육 	
	점검 <p>적응대책 핵심지표 · 부문별 성과지표</p>	

2. 주요 지표

지 표	'15 ~ '20	지 표	'15 ~ '20
기 후 변 화 시 나 리 오 고 도 화 (상 세 화)	AR5기반 (전 지구)  → AR6기반 (한 반 도) 	기 후 변 화 종 대 응 품 (누 적)	147건  → 200건 
기 후 변 화 취약성 지도 구축 (현 행 화)	AR5기반  → AR6기반 취약성 지도 	적 응 대 책 수 립 기 업 (누 적)	46개 소  → 100개 소 
적 응 정 보 공 동 DB (구 축 여 부)	- → 구축 	한 반 도 유 전 자 원 DB (누 적)	42,756건  → 48,000건 
기 후 변 화 취약 계 층 DB (구 축 여 부)	- → 구축 	기 후 적 응 지 역 사 회 모 델	유 형 별 모 델  → 지 자 체 확 산 · 보 급 
홍 수 위 험 지 도 (누 적)	19%  → 64% 	기 후 적 응 남 북 협 력 사 업	- → 10개 

2.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(안)

□ 추진배경

- (법적 근거)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
- (목적)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토록 규정 (2차 계획은 11~30년)
 - 특히, 제3차 계획은 '15.9월 제70차 UN총회에서 결정된 지속가능발전 목표(SDGs)의 이행에 중점 (17개 분야)

□ 계획기간 (참여기관) : 16~35년간 20년 장기계획 (25개 기관)

□ 주요 내용

- 2차 계획기간(10~14년) 64개 환경·사회·경제 지표를 보면 24개 지표가 악화 추세 (온실가스 배출, 수도권 인구집중 등)
- 3차 계획기간에는 UN의 SDGs에 맞추어 환경·사회·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, 전반적 지표개선을 추진

비전	환경·사회·경제의 조화로운 발전	
4대 목표	①건강한 국토 환경	②통합된 안심 사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●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● 지역간 격차 해소 ●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● 안전 관리기반 확충
14개 전략	③포용적 혁신 경제	④글로벌 책임 국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●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●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 ●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●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
●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반 강화		

□ 향후 계획 : 국무회의 심의·확정('16.1) 및 관련부처별 시행

1. SDGs 목표별 국내계획 연계

	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(SDGs)의 17개 목표	제3차 기본계획 14개 전략
1	빈곤	2-1.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
2	식량/농업	2-2. 지역간 격차 해소 2-3.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
3	건강/웰빙	2-3.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
4	교육	2-1.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
5	양성평등	
6	물	1-3.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
7	에너지	3-3.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
8	경제성장/일자리	3-1.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
9	산업화/혁신	
10	불평등	2-1.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
11	도시/공간	1-1.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2-4. 안전 관리 기반 확충
12	지속가능한 생산·소비	3-2.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
13	기후변화	4-2.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
14	해양생태/자원	1-2.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확대
15	육상생태/자원	
16	정의	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
17	글로벌 파트너십	4-1.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 4-3.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

2. SDGs의 국내이행 계획

□ SDGs의 각국별 이행은 ‘16년부터 UN 고위급 정치포럼(HLPF)을 통해 목표별 지표 설정 및 구체적인 이행방식이 논의될 예정

○ 국제적 협의 결과에 따라 국내 이행방안을 보완할 예정

3. 제21차 당사국 총회 주요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

◇ '15.12.12(토) 19:30(현지시간) 파리 기후총회(COP21)에서
신기후체제 합의문인 “파리협정(Paris Agreement)” 최종채택

* 협정 이행계획을 담은 총회 결정문(Decision)도 함께 채택

□ 파리협정 주요 내용

- (장기목표) 지구온도 상승을 2°C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, 1.5°C 지향
- (기여방안) 회원국이 스스로 결정한 기여방안(NDC)에 대하여 5년 단위로 이행계획 제출
 - 구속력 : 목표 제출은 의무, 각국의 국내적 이행 담보
 - 진전원칙 : 기여방안 제출시 以前보다 진전된 목표 제시
 - 시장 메커니즘 : 국가간 자발적 연계를 통해 국제거래 허용
- (재원 조성)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, 개도국은 자발적 참여
- (이행점검)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평가

□ 협정채택의 의의

- 선진·개도국 모두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 출범
-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여방안(INDC)의 점진적 강화 체계 형성
- 국제탄소시장 형성기반 마련 및 기술협력 강화

□ 향후 이행계획

- (국 내) 장기 저배출 발전전략 추진, 세부감축 이행계획 수립
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, 에너지 新산업 육성
- (국제협력) 국제 탄소시장 시범사업 발굴, GCF·ADB 등 국제
기금사업의 민간기업 진출 지원, 기술 메커니즘 공동연구 등

4. 친환경 에너지타운추진 현황 및 계획

- ◇ 시범사업 (3개소, 14.5월) : 홍천 준공 등 정상 추진중
- ◇ 본사업 (10개소, 15.4월) : 16년중 공사 착공 예정

□ 추진 현황

- (시범사업) 강원 홍천(주관:환경부), 충북 진천(미래부), 광주광역시 운정(산업부)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선정('14.5월)하고 사업추진 중

<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개요 >

구분	홍 천(~'15.12월)	진 천(~'16.12월)	광주(~'17.12월)
사업 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 가스, 퇴·액비 생산 + ▪ 태양광, 소수력발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태양광, 연료전지 발전 ▪ 봄~가을 생산 열 저장, 겨울 난방 활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쓰레기 매립지에 대규모 태양광 설비구축
주요 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가축분뇨 등 바이오 가스를 도시가스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혁신도시 신재생에너지 자립타운 모델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혐오 시설(매립지)을 신재생타운 전환 조성
추진 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준공 및 운영('15.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착공('15.6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('15.11월)

- ('15년 본사업) 부처별로 지자체공모 등을 통해 본사업(10개소) 신규 선정하고 전국적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체계 구축('15.4월)
 - 환경부 5개소(청주, 아산, 경주, 영천, 양산), 산업부 4개소(순천, 안산, 하동, 남해), 농림부 1개소(김제)를 주관 선정
 -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('16.3월)하고 '16년 하반기부터 순차 착공 예정

□ 향후 추진계획

- '16년 상반기중 추가 공모를 통해 5~7곳을 신규 선정하여 정부주도의 사업목표('17년까지 15~20개소 지정) 조기 달성

5. 마이크로 그리드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

□ 추진 개요

- 마이크로그리드(Micro-Grid)란, 특정 지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전력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소규모 전력망
- 에너지 신산업인 마이크로그리드 해외진출 확대 전략 마련 필요('14.9월, 에너지 대토론회)에 따라 수행한 연구용역결과 보고
 - *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 글로벌 확산 지원 모델 개발(221백만원, '15.5월~12월, GTC + 삼정KPMG 컨소시엄)

□ 해외진출 전략

- (여건분석)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·약점*, 기회·위협요인** 등 분석을 통해 단계적 해외진출 전략 마련
 - * 배터리 등 H/W는 강점이나, 시스템 운영 등 S/W기술은 약점
 - ** 신기후체제로 수요 증가하나, 기술장벽(선진국)·저가수주(개도국) 위협
- (단기) 국내적으로 공공-민간 협력체계 구축하고 실증경험 등을 활용하여 저가시장인 에너지 고립지역부터 진출
- (중장기) 국제공동연구 등 선진국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술 고도화, 고급 마이크로그리드 시장(병원, 군부대 등) 진출

□ 추진과제

- 민관 협의체 구성, 다양한 국내외 실증 프로젝트 추진 및 R&D 투자('15년 383억원)확대 등을 통해 역량 강화
- 수출금융·EDCF 등 국내기금지원을 확대하고,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월드뱅크 등 국제기금 활용 지원

□ 향후 조치

- 관계부처와 동 연구결과를 공유하고, GCF 사업모델 개발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 수립 등에 활용

- (정의) 마이크로그리드(Micro-Grid)란, 특정 지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전력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소규모 전력망

< 대규모 전력망과 마이크로그리드 비교 >

구 분	대규모 전력망	마이크로그리드
전력생산지	원거리	수요지내
주에너지원	화석연료(석탄, 가스 등)	디젤, 신재생(태양광, 풍력 등)
에너지 효율	낮음(30~50%)	높음(60~80%)
전력손실	큼(20~30%)	작음(10~20%)

- 대규모 전력망 연계여부에 따라, '계통연계형'과 '독립형'으로 구분
 - (계통연계형) 주로 '에너지 보안(security)' 측면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요한 병원·군부대 중심 구축, 최근 캠퍼스 등으로 확대
 - (독립형) 섬·산간오지 등 에너지 고립지역과 유명 휴양지 등에 전력공급, 디젤발전 중심에서 신재생+배터리 점유비율 증가 추세
- ⇒ 해외시장은 주로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중심으로 형성

< 계통연계형과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비교 >

구 분	계통연계형	독립형
차이점	비상시 독립운전	상시 독립운전
특징	무정전, 전력거래	신재생 최적조합
대상 지역	빌딩, 캠퍼스, 군부대, 공장	섬, 산간오지 등
구축 목적	공급신뢰도 향상, 이윤추구	공급비용 절감, 환경문제
에너지 원	외부전력, 가스, 태양광	태양광, 풍력, 디젤
규모	통상10MW이내	규모에 따름(수백~수천kW)

- (시장 전망) '13년 현재 글로벌 시장규모는 약 50억불 → '20년에 약 200억불로, 연평균 30%씩 성장 전망(Navigant Research, 2013.4)